

남북경협과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SHC기반민관협력모델  
- 성장회계기반 남북 경제성장모델을 중심으로-

김대영  
(융합경제연구소 대표)

본 논문은 기존의 남북 경협과 통일 비용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이 자본 시장과 장기투자자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기존 남북경협과 통일을 위한 비용조달과 통합경제모델의 한계를 극복한 SHC(ServantHolding Company) 기반 남북통합경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 모델과 SHC 기반 모델의 성장성의 차이를 성장회계 기반으로 비교하고 SHC 기반 남북경제 통합모델이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투자를 활용하면서도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융합시켜 남한과 북한이 동반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융합경제구조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주제어: 남북 경협, 남북 통일 경제통합, SHC(Servant Holding Company), 융합경제

I. 서론

남북경협모델은 남북의 정치적인 지형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제통합모형을 기반으로 장단기 관점에서 여러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의 남북의 정치상황에 대한 다음과 같은 3가지가정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협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문제가 해결되어 경제협력이 일어나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성장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이며, 둘째 미국과전세계로부터 충분히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정치구조를 가지게 되어 경제제재가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경제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셋째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거나 독립적인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관련 없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 자유 시장경제구조로 발전하는 상태에서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경제와 정치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남북경협에 관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통일비용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먼저 남북 경협과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헤브라이적 모멘트" : 정치적 헤브라이즘과 근대 공화주의 담론

손민석

(경기대 국제관계학과 초빙교수)

### 1. 서구 근대 정치질서의 세속주의적 기원 재검토

현대 정치의 글로벌 무대에서 탈세속화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20세기 중반 세속화 이론가들은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세계의 탈-주술화 과정이 진행 중이며, 신앙이라는 작업가설에 의존하지 않는 세속화 과정으로 세계 변환을 조망했다(Berger 1967; Martin 1978). 하지만 금세기 초 9.11 테러를 전후해서 종교문제가 세계 헤드라인 뉴스에 화두로 회자되면서 종교-정치 담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왈쩌는 세속 진보 진영이 인간과 종교에 대한 이해를 결여했을 때 진보적 해방운동 이후 종교적 반동에 직면하게 된 "해방의 역설" 역사를 추적하면서 종교와 정치의 얽힘에 대한 탐구를 요청한 바 있다(Walzer 2015).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등장과 국제정치적 변환, 공적 담론 지형에서 종교집단의 정치세력화 시도 등에서 드러난 탈-세속 현상은 그동안 간과 되어 온 종교 변수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Berger 1999; Fox 2001; Wald&Wilcox 2006; Philpott 2009).

지구적 자본주의와 종교 근본주의가 상존하는 현실 속에서 종교의 귀환 현상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명모델이 제시된 바 있다. 종교를 기능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대체로 공적 종교의 부흥을 사회경제적 결핍 혹은 안보 위협의 맥락에서 설명한다(Norris&Inglehart 2011). 어떤 이들에 게 정치화된 종교 근본주의는 인류 발전사에서 서구 근대 합리화 경로를 거치지 않은 '원시적 형태'의 기획이며, 미완의 근대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이러한 행태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관점이 서구인들의 자기기만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종교 근본주의는 쉽사리 소멸되지 않고, 항시적으로 서구 근대 기획의 성취를 위협하는 대안 세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Lilla 2007). 또한 종교 근본주의의 근대성을 주목하는 흐름에서는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교조적 행태가 인식론적 차원에서나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근대적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본다. 이를테면 이슬람 근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구조적 친화성 분석이나 세계화 불만족 세력 결집의 설명이 여기에 해당한다(Amin 2012).

한편 호전적인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도전은 국제정치이론 안에 팽배해 있던 세속주의 전제를 재검토하고 근대 국제질서의 종교적 기원 논의를 심화시켰다(Philpott 2000, 2011; Hurd 2004). 관례화된 세속주의 담론 역시 근대에 발명된 하나의 '정치적 신화'라는 점과 서구 근대의 신학-정치적 상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지적된 것이다. 서구 근대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에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 촉발된 정치신학 논쟁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후 현대 정치에도 여전히 신학-정치적 상상력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국제정치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관례적 이해방식은 종종 문명의 언어로 가장하면서 종교적 유인들의 지속적인 적실성을

은폐 해 왔다(Calhoun et al. 2011, 161)."

'세속' 근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제기된 이후 근래에 들어와서는 초기근대 종교 전통과 근대 정치질서 형성의 관계가 재검토되고 있다. 가령 홉스, 스피노자, 그로티우스 등 근대질서 형성

) 이 글의 초고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국제정치사상센터 워크샵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글이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저자의 서면허락 없이 인용을 금합니다. 코멘트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1-

에 영향을 끼친 사상가들이 헤브라이 서사를 정치적으로 독특하게 변주한 지점이 주목받고 있다 (Jones&Shain 2017). 근대 헌정질서 건설에 밀접하게 관여한 정치적 헤브라이즘(Political Hebraism) 전통은 사회계약론, 국가주권론, 공화주의, 연방주의, 국제법 사상의 자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형성에 끼친 그리스-로마 전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Schochet et al. 2008; Jacobs ed. 2011).

이러한 배경에는 초기근대 지성사 연구에 있어 지난 세기 중후반 유행하던 세속주의 '편견'이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가령 화행이론에 기대면서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읽기를 강조한 켄팅스키는 초기 근대정치에 영향을 끼친 고전시대 로마 공화주의 자료를 섬세하게 다루면서도 상대적으로 성서적 자원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아울러 스키너 자신이 훗날 대답에서 밝힌 것처럼 초기 저작인 『근대정치사상의 토대』의 경우 "세속적이자 중립적, 보편적 의미를 가진 국가 관념이 어떤 경로로 봉건적, 가톨릭 유럽의 붕괴로부터 출현했는지에 대한" 서술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료의 취사선택 문제와 세속 목적론 문제가 제기되었다(마리아 루시아 팔라레 스-버크, 2006, 586-587; Chapman et.al 2009, 46-74). 문헌중심주의 및 행간읽기 방법론으로 알려진 레오 스트라우스의 경우 초기근대정치사상 연구에 있어 "신학-정치적 문제"의 중요성을 일찍이 강조한 바 있다(Strauss 1958, 231). 하지만 '회의적(zetetic)' 정치철학 회복에 대한 연구 관심사로 인해 그는 계시종교 전통의 다채로움을 인간 지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로 환원시키는 경향을 지닌다. 인간과 대립하는 신적 행위 혹은 이성적 회의와 맹목적 신뢰의 '항구적 갈등' 모델은 역사 속에서 종교 전통이 당대 정치적, 지적 세계와 호흡하면서 근대질서로 의 변혁에 '산파' 역할을 했던 정치 실험을 주변화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 글의 목적은 근대질서 형성에 대한 세속주의 관점을 문제화하면서 근대 공화주의 담론 변화에 영향을 끼친 정치적 헤브라이즘의 한 갈래를 추적하는 것이다. 초기 근대시기는 새로운 정치 개념이 형성되고 격변의 시기에 새롭게 의미가 창출되거나 탈각되는 이른바 '문턱의 시기'였다. 넬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개혁을 전후로 형성된 정치적 헤브라이즘의 한 갈래는 근대 공화주의 담론에 독특하게 기여하게 된다(Nelson 2010).

아래에서는 근대 공화주의 담론 변화에 있어서 헤브라이적 모멘트를 검토한다. 종교개혁을 전후로 헤브라이 성서에 대한 유대 랍비들의 정치적 독해가 소개되고 있었다. 새롭게 조명된 랍비들의 성서해석은 군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이후 군주정 비판은 급진화되고 17세기 말 존 밀턴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군주제 그 자체를 정당성 없는 정체로 규탄

된다. 유럽 정치사상사에서 유대적 자원을 통해서 전근대 고전 공화주의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군주정을 배격하는 공화주의의 근대적 성격이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 것이다.

헤브라이 성서는 낡은 세계에 대한 붕괴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서사를 담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정치서사 안에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있었고, 여기에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종말론적 지평이 존재한다. 초기 근대 정치담론의 변화와 종교 전통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자의적 지배를 일삼는 종교권력의 문제와 변혁적 정치에 대한 기대상실이 함께 문제가 되는 오늘날 여전히 적실한 물음이 된다. 정치적 헤브라이즘 담론을 통해 근대질서의 세속주의 기원을 재검토할 뿐 아니라 근대 성립과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개된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을 숙고하고자 한다.

## 2. 근대 공화주의 형성에 있어서 헤브라이적 모멘트

매튜 아놀드에 따르면 서구 문명의 기동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인간의 완성 혹은 구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헬레니즘에서 최고의 이념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

-2-

는 것이라면, 헤브라이즘에서 최고의 이념은 실행과 복종이다." 그에게 헤브라이즘 전통은 "행동을 앞 위에 두는" 경향성을 지닌다(Arnold 2016[1866]).<sup>2)</sup> 역사 속에서 헤브라이즘 전통은 다양한 정치적 실천, 정당성 있는 최고권위에 대한 복종(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정당성을 상실한 하위권 위에 대한 불복종 여부의 유동성)에 있어서 다채로운 신학-정치적 상상을 제공해 왔다. 여기에서 는 반군주제 공화주의 담론 형성에 미친 초기 근대 서구의 정치적 헤브라이즘을 논의 대상으로 삼 고자 한다.<sup>3)</sup> 초기근대 유럽의 사상가들이 헤브라이적 담론을 가지고 반군주제 공화주의라는 정치 적 실천과 연관시킨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고대와 대비되는 근대 공화주의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부형태에 있어 비선출직 세습권력인 군주정 자체를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고전시대 공화주의는 일인이 지배하는 통치와 불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군주정을 그 자체로 정당성이 결여한 타락한 폭정으로 간주하는 사조 는 18세기 근대 혁명 시기 공화주의 이론가들에 의해서 널리 알려졌다. 초기 반군주제 공화주의 담론에 영향을 끼친 흐름에는 평등주의적 근대 헤브라이즘 담론이 있었다. 일례로 미국 혁명 당시 군주제를 강력하게 비판한 토머스 페인의 『상식』에는 이러한 흐름이 잘 드러나 있다.<sup>4)</sup> 혁명 당시 변곡점을 만든 팜플렛에서 페인은 헤브라이 서사를 활용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은 원래는 공화정이었으며, 군주정은 이교도가 세계에 도입한 것임을 역설한다. 그는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배도를 질책하면서 종말론 풍경 아래에서 타락한 군주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주정 자체를 단죄한다 (Newman 1978; Paine 2004).<sup>5)</sup> 베일린은 『미국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에서 "혁명기 저술에 서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고전 고대의 유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흥미롭게도 페인의 『상식』 논변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용은 고전고대 저작이라기보다 헤브라이 성서에서 취한 것이었 다(베일린, 1999[1967], 50-51). 반군주제 공화주의 담론을 논증하기 위해 히브리 성서를 인용한 것은 페인만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니었다. 그는 존 아담스에게 자신의 성서해석이 군주제 반대론 자 존 밀턴의 저술에서 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Nelson 2014, 114).<sup>6)</sup>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 공화주의 형성에는 고전고대의 모멘트뿐 아니라 헤브라이적

모멘트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와 같은 고전고대 공화주의 사상이 군주제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주제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 단죄는 헤브라이적 계기에 힘입은 바가 있다. 물론 군주제에 비판적인 성서해석을 담지한 헤브라이즘 전통과 근대 공화주의 관계는 직선적 인과관계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고전고대 전통과 히브리 서사, 다른 종교전통과 근대정치는 여러 사회변화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단절과 연속, 다양한 굴곡 속에서 변주한다. 아울러 근대 정치사에서 종교 전통은 자유의 점진적 확대를 추동시켜 왔다는 해석 혹은 반대로 자의적 지배와 폭력의 억압체계만으로 잔존한다는 해석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군주제 반대론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 공화주의의 경로 일부를 탐색하고자 한다. 공화정을 비군주적 정부형태로 명명하기 시작했던 르네상스 공화주의의 담론적 실천,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 군주정 반대신학에 영향을 끼친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즘의 등장 이 그것이다.

)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관조와 실천으로 양분하는 작업에 대한 비판은 하조니(2016) 참조.

3) 이 글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성서에 대한 초기근대 이론가들의 정치적 독법이며, 고대 헤브라이 공화국 성격에 대한 고고학적 규명 혹은 성서학계에서 논의되는 주석학 그 자체는 아니다(Neuman,

). 유대 정치사상의 다양한 흐름은 Cooper(2016) 참조. 4) 페인의 반군주제 저작은 당대 혁명 논쟁 중심에서 있었다. 한편 최근 연구는 1775년 이후에도 혁명 주

요 인사들이 왕당파에 대한 헌신을 유지했다는 점을 지적한다(Nelson 2014, 149). 5) 미국의 식민지 시대 안에서 17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성서를 인용하면서 특정 정치상황에 개입하는

목적을 뚜렷이 하는 팜플렛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띠게 된다(Noll 2015, 272). 6) 밀턴의 헤브라이적 공화주의가 미국 혁명기로 전파되는 경로는 Perl-Rosenthal(2009) 참조

-3-

### 3. 르네상스 공화주의와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의 의미망 변화

근대 혁명기 공화주의는 뚜렷하게 군주제 반대론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전고대의 공화주의 전통과 대비된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 맥락에서는 통치자의 숫자 그 자체만으로도 최선의 정체인지 최악의 정체인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 이상적으로는 군주정이 최고질서이지만, 현실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군주정을 이루기는 어렵고, 도리어 최악의 변형인 참주정은 쉽게 나타난다. 사익을 추구하는 3가지 변형(참주정, 과두정, 민주정) 가운데 가장 견딜 만한 것은 민주정체이다. 특수성에 상응해야 하는 정치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변화하는 현실과 개별적 상황 속에서 어떤 정체가 최선인지를 미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입법자들과 정치가들은 정체의 질과 양을 고려하면서 어떤 정체가 개별국가에 적합한지를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치자들의 덕성에 비해 통치자의 숫자의 중요성은 약화된다(아리스토텔레스 2009; Hankins 2010, 454-455).

고전 전통에서 공화정에 반대되는 개념은 군주정 그 자체라기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폭군정이었

다. 로마의 키케로 역시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은 모두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 곧 공동선 추구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우선적으로 인간을 국가라는 유대관계로 계속 묶어놓는 질서를 유지한다면, 비록 완전한 것도 최선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허용할 만한 것"이다(키케로 2007, 132). 아울러 고대 로마인들은 특정시기, 가령 기원 전 510년경 왕정 폐지 이후 제정 도래 이전까지의 시기를 오늘날처럼 공화정 시대로 명명하지 않았다. 구 원로원을 몰아내고 아우구스투스 시대로 이행된 시기(로마혁명)는 레스 푸블리카의 종언이 아니라 '변형'으로 이해되었으며, 제정 시대에도 레스 푸블리카는 사용되고 있었다. 타키투스가 예외적으로 원수정(principatus)의 도래를 공화국의 종언으로 언급하기는 하지만, 공화정 시대와 제정 시대로 구별 짓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르네상스기에 들어오면서였다(Hankins 2010, 460).

르네상스기에 들어오면서 공화정은 복수의 지배 체제로 특정되기 시작한다. 가령 마키아벨리 는 『군주론』 1장 첫 문장에서 "모든 국가(stato), 즉 주민에 대한 명령권을 가져왔거나 갖고 있는 영토적 지배조직(dominio)은 공화국이거나 군주국"이라고 밝히면서 공화정을 1인 지배와 대조한 바 있다(마키아벨리 2011, 4). 공화정이 비-군주적 정부(non-monarchical government)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 데에는 콰토르첸토 문화를 선도했던 이탈리아 인문주의자 브루니의 역할이 중요했다. 브루니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비롯한 일련의 저작들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번역과정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의미망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Hankins 2010, 464-465).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politeia를 폴리스 생활양식 일반을 의미하는 헌정질서를 총칭 할 때 뿐 아니라, 특수한 정체인 다수의 지배로 사용하기도 했다. 중세에 들어와서 뫼르베르크의 기욤이 그리스어 politeia를 politia로 직역했으며, 아퀴나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주해』를 집필하면서 이 번역어를 따랐다. 군주정을 가장 선호했던 아퀴나스였지만, 그는 군주적 지배가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폭군정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혼합된 politia를 통해 권력제한을 모색했다(Blythe 1992, 46-50).

이후 1437년 피렌체 인문주의자 브루니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다시 번역하면서 뫼르베르크의 기욤 번역어 politia를 res publica로 대체하게 된다. 브루니의 번역본은 당대인들에게 널리 활용되었고, 이에 따라 res publica는 전체 헌정질서의 공동선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수가 지

-4-

배하는 특수한 정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치적 정황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에서는 피렌체, 베니스와 같은 도시공화국과 밀라노와 나폴리와 같은 세습군주국,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국가들이 대립과 반목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와중에 res publica는 군주정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용례로 정립되어 간다. 단순한 어휘론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res publica는 도시공화국의 이데올로기적 선전도구가 되기도 했다. 공동선 res publica을 추구하는 정부형태는 다수의 지배 res publica 속에서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다.<sup>7)</sup> 논쟁은 르네상스 당대 정부형태만이 아니라 고대 로마사 서술까지도 확산되었다. 케사르의 등장 이전 시대를 공화정 시대로 구분 짓기 시작한 것도 이 때이다(Hankins 2010, 466-467).

공화정이 다수 지배를 의미하고, 도시공화국 정부형태의 우월성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그렇다고 이 시기에 군주정 그 자체를 정당성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었다. 르네상스기 공화주의자들을 군주정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로 묘사한다거나, 배타적으로 군주정과 공화정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17세기 이후 공화주의 모델을 르네상스로 곧바로 투사시키는 시대착오이다. 가령 한스 바론은 시민적 인문주의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브루니를 주 목하면서, 그를 자유공화제를 찬미하는 공화주의 이데올로기로 그려낸다. 바론에 따르면 브루니 사상은 전임자 살루타티가 지닌 군주제적 경향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의 근대 공화주의 질서로 이행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Baron 1966). 하지만 브루니가 문필가이자 피렌체의 관료로서 수행한 수사적 차원, 당시 피렌체 정세 성격 규정에 대한 문제, 중세 후기 정치언설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가 공화정만을 유일하게 합법적 정체로 주창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Siegel 1966; Hankins 2010). 브루니는 다수가 지배하는 "공화정 체제의 우월성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하나의 절대적 평가기준이자 정치행동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의도에는 들어있지 않았다(윤비 2012, 220)."

당시 공화주의자들은 군주제 역시 합법적 정체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었다. 일례로 『난니 스트로찌 추도사』에서 브루니는 자유공화정의 우월성을 설파했지만 그 안에는 위대한 군주에 대한 찬미 역시 내포되어 있었다. 그런데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군주제 그 자체를 단죄하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서구 지성사에서 공화국만이 유일무이한 정통성 있는 체제라는 혁명적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근대 공화주의자들은 이러한 급진적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 규범적 정당성을 성서적 자원에서 발견하게 된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 17-18세기 공화주의자들은 군주정을 우상숭배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한 저항을 신학적 차원에서 정당화 하게 된다(Nelson 2010, 23).

물론 공화주의 덕성과 신학적 윤리를 결합시키는 작업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고전고대 전통의 유산만을 회복한 순전한 세속주의 운동이라는 주장 역시 교정되어야 할 통념 가운데 하나이다. 고전고대 전통에 대한 냉혹한 판단을 내린 교회 일각의 흐름에 반대한 것은 사실이나, 르네상스기는 그리스도교 전통과 고전고대 전통의 공통 근거를 마련되고 있었다.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활동했던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의 저술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면 공화주의 덕성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와 같은 고전고대 유산과 성서적 자원을 결합하면서 배양되고 있었다. 살루타티의 경우 그리스도교적 조국애는 고대인들의 조국애보다 낫기까지 하다. 참된 사랑(vera caritas)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었다. 개별사상가들 사이에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지배에 대한 억제, 과도한 권력욕에 대한 비판,

) 시민 참여와 자치를 실현한 공화제와 일인지배자에 의한 시노리아 체제의 대립에 관해서는 김경희 (2018), 137-164 참조.

-5-

신앙적 분투와 참된 종교의 지향으로서 자유, 종교적 의무로서 시민적 참여, 신적 선물로 주어지는 이상 정치, 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화국 등 르네상스기 공화주의자들에게 좋은 신앙은

대 체적으로 좋은 시민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Viroli 2012).<sup>8)</sup>

하지만 공화적 덕성과 종교적 신념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넘어 군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마침내 그 자체를 배격하는 담론이 본격화된 계기 가운데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 전개된 정치신학 논쟁을 통해서였다. 종교개혁운동은 이후 성서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의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시기 유대 저술가들의 성서주해가 유럽의 정치담론으로 새롭게 소개되면서 군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논의가 촉발되었다. 헤브라이적 모멘트(Hebraic Moment)를 경유한 존 밀턴 시대에 이르러 서구 근대세계는 군주정 그 자체를 배격하는 담론의 지평을 선보이게 된다.

#### 4. 근대 정치적 헤브라이즘과 군주정 반대신학 (1)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즘의 등장과 헤브라이 공화정(respublica Hebraeorum)

16-17세기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즘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중세 유럽에서도 히브리어에 능통한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스트들이 부재한 것은 아니다(Signer 2004). 가령 리라의 니콜라스는 유대인들의 성서(타나크)만으로 그리스도의 강림과 같은 교리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랍비 래쉬의 주석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Klepper 2007).<sup>9)</sup> 레이먼드 마틴은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탈무드와 같은 유대 문헌을 활용하기도 했다(Burnett 2016).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기 피코 델라 미란돌라나 피치노처럼 카발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유대 학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적은 없었다고 해도, 15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히브리어 문법 및 주석 활용은 그리스도교 학계 안에서 소수의 몫이었다(Nelson 2010, 10).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즘이 유럽에서 확산된 계기 가운데 하나는 종교개혁이었다.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라틴어 대역 신약성서를 출간하고 1년 뒤인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필두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sup>10)</sup> 중세 가톨릭교회가 성서를 곡해했다는 개혁자들의 주장은 권위 있는 성서해석 문제를 중심 쟁점으로 이끌어간다. 논쟁의 최종심급으로 성서의 권위가 강조되면서 성서 언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구약성서 원어인 히브리어 교육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나게 되었다. 16세기 이전까지 출판된 유대 문헌들이 주로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서 소화되었다면, 이후에는 각 진영 신학기관의 수요에 따라, 번역과 출판, 교육을 포괄하는 공급시장이 그리스도교 세계에 형성된 것이다(Burnett 2012). 여기에 검열을 우려한 출판업자들이 랍비 주석들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위를 조정한 결과 유대 문헌들은 더 활발하게 전유될 수 있었다(Raz-Krakovitzkin 2004). 그리스도교 세계의 학자들이 점차적으로 유대 랍비 주석에 호의적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sup>11)</sup>

) 한편 스트라우스는 마키아벨리가 한편에서는 세계초월적 계시 종교비판을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내재적 공화주의 종교 선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Strauss 1953). 당대의 맥락 속에서 마키아벨리를 공화주의적 그리스도교 전통으로 위치시킨 점은 Viroli(2010), 초월적 계시종교 비판과 관련된 마키아벨리의 관점에 관해서는 Parsons(2016) 참조.

) 래쉬의 이사야 주석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논쟁에 관해서는 Grossman(2012) 참조. 10)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성서 출간은 종교개혁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Whitford(2016), ) 참조.



한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 종교적 통일성이 깨지고 정치적 위기사태가 지속되면서 동일한 교파 안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개진되고 있었다. 권위와 복종, 저항을 둘러싼 정치언설을 신학적으로 규정하는 일반원칙은 동일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에서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실제로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Vanhoozer 2005, 125). 일례로 칼뱅과 베자, 윌렛, 러더포드는 모두 개혁파 프로테스탄트로 신학적 연속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다윗에 대한 정치적 독해는 해석되는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sup>12)</sup> '프로테스탄트의 로마'로 불린 제네바에서 칼뱅이 바라본 다윗은 참된 종교를 수호하는 성 군이자 정치적 압제에 묵묵히 인내하는 모범이었다. 이에 반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일어난 학살 이후를 모색해야 했던 베자에게 다윗은 불의에 저항하고, 폭군으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책임 있는 하급관료이다(DeLapp 2014, 41, 65-66).

제임스1세 치하에서 잉글랜드 국교회 사제 윌렛에게 다윗은 분열왕국을 통일시킨 안정적인 군주였다. 비록 국왕의 신심이 지금은 깊지는 않더라도 다윗이 그러했듯이 결국에는 신의 마음에 합한 군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반대로 찰스1세 치하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하던 러더포드의 경우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그에게 다윗은 그 권위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인민을 통해 선출된 인물이다. 신민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참된 종교를 수호한 다윗과 달리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인들과의 국민언약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출생을 통한 왕권만을 무리하게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당대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상이었던 가톨릭신앙을 강제하려 드는 찰스1세에게 저항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DeLapp 2014, 111-113, 156).<sup>13)</sup>

이처럼 종교언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시공간에 배치되면서 해석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정치서사를 만들고 있었다. 헤브라이 역사는 정치적 권력의 자원들을 정당화하거나 기각하는데 모두 사용되었고, 교권과 속권 관계모델도 상호충돌하면서 경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점을 보였는데, 그것은 헤브라이 전통이 주어진 정치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초기 근대 유럽에서 정치질서의 정당성과 건국의 문제는 신적 권위를 인정받는 성서의 정치질서 탐구와 무관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헤브라이 성서에 대한 '정치적' 독해가 부각되고 있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시민적 덕성의 모범을 성서에서 발견하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헤브라이 성서의 정치서사를 통해 이상정부론을 발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신약성서의 구원사(Heilsgeschehen) 관점에서 헤브라이 성서를 해석하는 예표론으로 만족하지 않고, 헤브라이 서사에 담긴 의미를 독립적으로 탐색해 갔다. 신적으로 승인된 고대 헤브라이 정치질서는 당대에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정치적 헌정질서이며, 헤브라이 성서에 서 신이 금지하는 정치규범은 초기근대시대에도 배격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즘은 정부형태를 둘러싼 정치적 정당성 뿐 아니라 창건의 모멘트에 있어 건국의 정체성을 고대 이스라엘과 연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일례로 네덜란드 공화국의 창건 담론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

) 랍비 주해에 대한 호의적 접근을 포함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학문적 교류가 있었지만, 여전히 유럽 세계에서 유대인 박해와 불관용 문제는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신학적 차원에서도 반유대주의는 지속되고 있었다. 학문적 교류 혹은 사업상 관계가 있었지만 이를 친유대주의(philosemitism)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시기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즘과 친유대주의 관련 논의는 Melamed(2012), 반-유대주의에 관해서는 Oberman(1984) 참조.

) 상반된 해석이 등장하는 일차적 요인은 헤브라이 성서 내러티브 자체가 지닌 다면적 특징 때문이다. 또한 내러티브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석자의 맥락이 관여된다.

) 개별 사상가들의 다윈 주해 시점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강조점에 관해서는 DeLapp(2014) 참조.

-7-

란드는 17세기 초 전쟁을 통해 독립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네덜란드 독립을 둘러싼 집합적 정체성은 타키투스가 묘사한 고대 로마인들에 항거했던 바타비아인들의 투쟁 뿐 아니라 토라(모세 오경)에 묘사된 압제와 해방의 서사와 잇닿아 있다(Dunkelgrün 2009). 독립 이후에는 내부 정파에 따라 모범으로 삼는 이상 국가 모델이 상이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공히 자신들의 국가정체성을 '네덜란드의 이스라엘(Neerland's Israel)'로 상상하면서 고대 헤브라이 종교언술과 당대 정치서사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나갔다.<sup>14)</sup> 식민지 미국 역시 자신들을 제국의 압제를 떠나 자유를 찾아 약속의 땅에 도착한 '새로운 이스라엘'로 간주하고 있었다(Cherry ed. 1998).

헤브라이 성서에 대한 정치적 독해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유대 저술가들의 해석은 중요한 역할을 끼쳤다. 일례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된 세파라드 유대인들(Sephardic Jews)은 당시 무역을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용정책을 펼친 네덜란드에 정착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담론 심화에 기여했다(Mintz-Manor 2017, 3-33). 중세 유대학자 마이모니데스의 『미슈나 토라』가 라틴어로 번역되고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스트들과 랍비들의 교류가 있었다. 랍비 므나세 벤 이스라엘은 후고 그로티우스를 포함해서 레이든 대학의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스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Katchen 1986).<sup>15)</sup> 비단 네덜란드 뿐 아니라 유럽의 지적 담론세계에서 헤브라이 문헌들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갔다.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스트들은 고대 헤브라이 텍스트에 담긴 정치적 지혜를 가지고 당대 헌정질서를 디자인하는 저작들이 쏟아냈다. 헤브라이스트들은 탈무드, 미드라쉬, 고대 유대사가 요세푸스, 중세 유대 랍비들의 문헌을 참조하면서 고대 및 근대 정치담론에 폭넓게 개입했다. 이렇게 출간된 '헤브라이 공화국(the respublica Hebraeorum)' 저작들은 "17세기 유럽 정치저작에서 가장 지배적 장르"로 평가될 만큼 담론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Nelson 2010, 16-17). 이탈리아의 카를로 시고니오가 출간한 헤브라이 공화국은 향후 그로티우스가 고대 이스라엘과 네덜란드를 비교하는 작업에 영향을 끼쳤다(Bartolucci 2007).<sup>16)</sup> 네덜란드에서는 레이든 대학의 피터 쿠나이우스가 고대 헤브라이 공화국 논의를 당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서 분석하면서 해링턴의 재분배 경제학에 영감을 제공했다(Nelson 2010, 74-87).<sup>17)</sup> 잉글랜드에서는 최고의 '랍비'로

알려진 존 셀 던이 자연법, 관용의 원칙, 국제해양법 등에 대한 헤브라이 성서의 랍비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

) 네덜란드의 국부 오라네 공 빌럼은 헤브라이 서사에 등장하는 정치지도자로 비유되었는데, 모범으로 삼는 군주상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독립전쟁 당시에 그는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수 아로 그려지지만, 독립 이후 반항론파(Counter-remonstrants)에게 모범 군주는 히스기야에 비유되는데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위상세력[가톨릭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대내적으로는 레위인[성직자]와 협력하면서 위상을 타파하며, 예언의 말씀[성서의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18-20장). 율법을 가르치고 대제사장[성직자]와 협력하면서 위상을 배격하는 요시아 역시 대안 모델이 될 수 있었다(열왕기하 22-23장). 한편 항론파(Remonstrants)의 경우 정부 관료와 성직자의 협력관계보다 직무 구분에 강조점을 두면서 여호사밧을 이상군주의 모범으로 삼았다(역대기하 19장). 항론파가 공화국에 있어서 성직자 권력의 확대를 우려했다면, 반항론파는 칼뱅주의 교회를 사회의 근간으로 여겼다(Bodian 2008, 155-158).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항론파와 이를 기각하는 반항론파 논쟁을 둘러싼 네덜란드 정치와 종교는 Sierhuis(2015), 반항론파와 국가의식은 Groenhuis(1981) 참조.

) 마라노로 태어나 네덜란드에 정착한 므낫세 벤 이스라엘은 스피노자가 회당에서 파문당했을 때 원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당대 영향력 있는 랍비였다(Kaplan et.al 1989; Popkin 1992, 149-171).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을 네덜란드의 정치적 헤브라이즘 맥락 속에서 위치시킨 논의는 Abolafia(2014) 참조.

) 고대 학문 연구에 집중한 시고니오는 표면적으로는 당대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대 여러 논쟁 맥락을 고려할 때 그의 작업을 비정치적인 문헌학의 범주로만 제한하는 것은 설부른 판단이다. 16-17세기 그리스도교 학식(erudition)에 관한 문제는 Laplanche (2008), 시고니오의 저작에 대한 논쟁 맥락은 Bartolucci(2017) 참조.

) 해링턴의 히브리 공화국 담론은 Beiner(2014) 참조.

-8-

다. 그는 교회-국가 관계에 있어서 헤브라이적 에라스투스주의를 제시하고, 노아7법을 통해 자연법사상과 국제법을 발전시켰다(Rosenblatt 2006; Haivry 2017).

(2) 군주정에 대한 비호의적 성서해석: 요세푸스의 경우

고대 유대 저술가들의 문헌들 가운데는 요세푸스의 저작이 주목을 받고 있었다.<sup>18)</sup> 요세푸스의 중요성은 그가 고전 정치학 용어를 가지고 헤브라이 서사를 해명했다는 데 있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화된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대 역사를 소개하는 작업을 한 요세푸스로서는 청중들에게 호환 가능한 용어들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그의 저작에는 "헤브라이 성서로 해석한 유대 민족의 정치체제(politeia)"가 담겨 있다(요세푸스, 1987, 40). politeia, nomothetes 등을 통해 요세푸스는 헤브라이 서사를 본격적인 정치학의 맥락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계약 사건은 정치질서가 본격화되는

분기점 혹은 창건의 모멘트였다. 요세푸스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신의 율법을 받아서 헤브라이 인들 에게 전달"하면서 신이 헤브라이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의 방법과 정치질서(politeia)"를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시내산 계약 당시 모세는 정치적 헌정질서의 해석자로 호명된다. 또한 유대 제의 법 규율 설명 단락에서 모세는 입법자(nomothetes)로 소개된다. 요세푸스의 설명에 따르면 모세 가 제정한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입법자가 신적 인간"임을 금방 느끼게 된다. "누구든지 편견 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살펴보면 모든 것이 우주를 대표하고 있고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세푸스에게 모세는 신을 기쁘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정 치형태와 법률"을 남긴 인물이다(요세푸스 1987, 185, 199, 205; Nelson 2010, 89-90).<sup>19)</sup>

요세푸스는 고전 정치학에서 사용하는 정부형태 용어로 모세 이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체를 밝힌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 사울과 다윗 왕 때부터 군주정(basileia)을 시행해 온 이스라엘은 유대왕국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다른 정체로 변화한다. 바벨론 포로기 유대 공동체는 귀족정치(aristokratia)에 과두정치(oligarkhia)가 포함된 정부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대사제가 정부 수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요세푸스 2013, 27 [Ant. 11.109-13]; Rodgers 2009). 요세푸스는 역사 속에 등장한 대중들이 지배하는 체제나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군주정 모두에 비판적이다.<sup>20)</sup> 그는 사울 왕정 이전 체제를 귀족정과 관련시키면서, 귀족정의 우월성을

) 요세푸스는 그리스도교 출범 초기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자주 인용된 저자이다. 칼뱅의 요세푸스 수용에 관해서는 Essary (2017) 참조.

) 요세푸스의 모세서사에서 법의 지배는 자유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Feldman 1999, 435). 한편 으로 모세서사는 자유(eleftheria)를 향한 여정이다. 이집트 왕궁에서 길러진 모세가 장성했을 무렵 군대장관으로 임명된 모세는 "자유를 얻을 희망"이 없는 이집트에 승리를 안긴다(요세푸스 1987, 147). 음모를 피해 피신해 있던 모세는 헤브라이인들에게 "자유를 갈망하는 욕구"가 있음을 보고 파 라오 앞에 다시 선다(요세푸스 1987, 152). 출애굽사건 이후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어지자 모세는 이 문제를 신은 자신들의 "자유 수호 의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요세푸스 1987, 173). 모세 가 총회를 소집해서 신이 자신들에게 주기로 결정한 것은 "자유와 행복한 나라의 소유"라고 선언한다 (요세푸스 1987, 222). 요세푸스의 모세가 그리는 자유는 현대적 의미에서 간섭의 부재와는 거리가 있다.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헤브라이인들에게 본 것은 비단 자유를 갈망하는 욕구 뿐 아니라 모세가 인도하는 바대로 기꺼이 따르겠다는 의사였다(요세푸스 1987, 152). 그렇다고 자의적 지배 상 황에서조차 정치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도 아니다. 요세푸스의 모세가 강조 한 자유는 법의 지배와 연계되어 있다. 요세푸스는 신법의 통제를 받는 정치질서를 강조한다. 유대인 들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은 마치 "부친이나 지배자(despotes) 밑에서" 사는 것과 동일하"다고 요세푸스는 지적한다(Feldman 1999, 435).

) 전반적으로 요세푸스가 대중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그는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신적 심판을

주장한다. "귀족정치와 귀족정치 밑에서의 삶의 방식이 가장 좋은 제도이다. 너희는 다른 정치형태를 좋아해서는 안 되며 항상 귀족정치만을 사랑해야 한다." 왕의 권력은 법률에 따라 통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대제사장과 의회의 투표 없이 무엇이든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요세푸스 1987, 271 [Ant. 4. 223-224]).

군주정 논의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유대정치사의 정초를 놓은 모세는 한 번도 왕(basilos)으로 호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Rogers 2009, 179). 요세푸스는 모세가 백성을 출애굽 시킨 후 시 내산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사령관 혹은 지도자(stratag s)로 호명하고, 모세 서사가 종결될 때 까지도 이어진다(요세푸스 1987, 169, 288[Ant. 3.2, 4.329]). 다른 고전고대의 정치지도자들이 지닌 뛰어난 덕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상찬하면서 요세푸스는 모세를 입법자, 사령관과 지도자, 예언자, 심지어 신적 인간으로까지 호명한 바 있다(Meeks 1967, 131-144). 하지만 왕의 호칭만 큼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는 당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종교철학자 필로나 후대 중세의 아랍 및 유대 사상가들의 호명방식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필로에게 모세는 "신이 거하는 곳, 비가시적 이고 형태 없는 본질의 세계"이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토대가 되는 신적 세계에 들어간 "모든 나라의 신과 왕"으로 소개된다. 중세 및 르네상스 아랍 세계와 유대 철학자들에게도 모세는 플라 톤의 철인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예언자-왕이다(Philo 1935, 359 [On Moses 1.158-159]; Melamed&Goodman 2004).

요세푸스는 모세를 왕으로 호명하는 대신 왕권과 대립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이집트 공주가 나일 강에서 건진 모세를 파라오에게 데리고 갔을 때 모세와 기존 왕권과 도전하는 세력으로 그려진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파라오가 모세에게 왕관을 씌어 주었을 때 "모세는 그 왕관을 땅에 집어 던지고 철없이 찌그러뜨리고 발로 밟았다." 이집트 서기관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보고, 파라오의 왕관을 발로 밟은 모세를 죽이라고 말한다(요세푸스 1987, 144). 요세푸스가 모세를 왕으로 호명하지 않은 배경에는 그의 군주정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가 담겨 있다.<sup>21)</sup>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세푸스는 귀족정을 군주정보다 우월한 제도로 간주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 모세를 통해 전달된 최고질서는 귀족정 그 자체가 아니다. 도리어 모세의 정치체제는 "정치 권력을 군주에게 위임하거나, 소수에게 위임하거나 다수에게 위임하는 정부형태 그 어떤 것과도 구분된다(요세푸스 2005, 164 [Ag. Ap. 2.165])". 요세푸스는 모세의 정치체제를 표현하기 위해 인류역사에 새로운 정치용어를 가져온다. 그것은 신정정치(θεοκρατία, theos+krateo)이다. 요 세푸스에 따르면 신정정치는 "모든 통치와 권력을 신에게 귀속시키는 정치체제이며, 인류 전반에 게, 또한 어려움 중에 기도응답을 받은 이에게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으로서 신을 바라보도록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사적 생각도 신에게서 숨길 수 없다(Barclay 2006, 261-263)."

요세푸스의 신정정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전개된 바 있다.<sup>22)</sup> 앞선 진술 자체만 두고 본다면 신정정치는 성직자 정치(priestcraft)와 구분된다. 전자가 통치와 권력을 신에게 귀속시키는 신학적, 형이상학적 차원을 포괄한 진술이라면, 후자는 정치적 대표 문제에 국한되어

받게 된 고라 서사를 데마고그의 몰락으로 그려낸다. 고라는 "달변가이며 군중을 쉽게 설득할 줄 아는 설득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대중들을 선동하면서, "마치 자기가 공공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인 양 보이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군중들의 힘을 빌어" 사제직을 빼앗으려는 계략이 이면에 깔려 있었다(요세푸스 1987, 231-232). 아울러 요세푸스는 자유와 허용을 구분 짓고 충동적인 대중들을 비판적으로 논평한다(Feldman 1999, 436).

) 요세푸스가 군주정 자체를 배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요세푸스의 군주정을 포괄적으로 다룬 논의는 Feeley(2017) 참조.

) 요세푸스의 신정정치 논쟁에 대한 서지정보는 Barclay(2006), 261n638 참조.

- 10 -

있다. 아울러 성직자 정치와 관련해서 요세푸스는 이미 귀족정 범주에 귀속시키면서 헤브라이 서사 안에서 사제적 귀족정을 다룬 바 있다. 모세 체제는 군주정이나 귀족정, 민주정과 같은 일반 정부형태와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요세푸스는 신을 우주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유대율법은 "일반 제사장들을 공무의 집행자로 임명하고, 대제사장을 제사장들의 감독관으로 임명"한다. 유대율법은 경건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요세푸스 2005, 169). 이와 같이 요세푸스의 신정정치 해석은 다양한 차원으로 개방되어 있다. 내면의 영혼까지 통제하는 종교정치로 기능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어떤 통치 권력도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권력비판 기재로 작동될 수도 있다.

요세푸스의 신정정치가 권력비판으로 기능한 지점은 군주정 출범과 관련된 논평에서다. 그는 이미 모세를 왕으로 호명하지 않음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군주정 우월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상징자본을 간접적으로 소거한 바 있다. 또한 헤브라이 공동체의 분열과 멸망을 초래한 왕들의 실책들을 열거하면서 군주정에 비호의적 차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요세푸스는 군주정 출범 자체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는 맥락에서 요세푸스는 신적 정의와 군주정을 날카롭게 대비시킨다. 백성들의 요청은 "정의에 대한 본능적 사랑과 군주정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을 괴롭혔다. 요세푸스의 사무엘이 선호한 정치 체제는 귀족정이었다. 그는 귀족정을 통해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뿐 아니라 "신적인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왕에 대한 요청은 사무엘만 불쾌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신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백성들의 군주정에 대한 요청은 신에 대한 무례함이며, "신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무례함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사실 해당되는 헤브라이 성서 사무엘상 8장에는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요세푸스의 사무엘 판단으로는 군주정을 출범시키게 될 경우 정의에 대한 사랑이 훼손되고, 사람들의 행복한 삶과 신적 성품의 형성이 좌초될 수 있었다. 또한 성서에서 사무엘에게 현현한 신은 엄히 경고 할 것을 명한 대목을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확장된 논평을 단다. 그들이 꾀하고 있는 급격한 변혁 시도를 "묵과하지 않고 징벌을 가할 것이다." (요세푸스 1987, 359-360) 군주정에 대한 신적 불승인에 대한 그의 논평은 훗날 근대 공화주의자들이 "요세푸스주의의 급진화"를

통해 군주 론 반대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 (3) 군주론 반대신학과 배타적 근대 공화주의 탄생<sup>23)</sup>

넬슨은 17세기 말 군주정을 그 자체로 배격하는 공화주의(republican exclusivism)이 출현하게 된 계기를 헤브라이스트들의 급진적 군주제 비판에서 발견한다. 헤브라이 성서에 기록된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한 내러티브는 군주제 비판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sup>24)</sup> 사회 문화적 변동에 있어서 종교가 차지하는 위상이 막대한 상황에서 왕을 요청하는 것이 신을 버리는 것과 연결된다는 주장은 군주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전후로 한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사무엘상 8장 본문을 통해서 군주정 그 자체를 기각하는 주장이 전개되지는 않았다. 성서 내러티브 안에는 경쟁하는 서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군주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로 보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 이 단락은 넬슨(2010) 논지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출판 이전에 보완할 예정이다. 24) 하조니에 따르면 사무엘상에 나타난 왕정성립은 "자연 상태의 공포를 끝내고 사회계약을 기초로 형성된 초기 근대국가 개념의 원천들 중 하나다(하조니, 2016, 190).

- 11 -

군주가 새겨야 할 경고와 취해야 할 덕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헤브라이 성서 안에 군주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군주 선출 시 필요한 덕목이 함께 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16세기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는 두 본문을 조화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첫 번째 해석은 사무엘상에서 백성들은 덕망 있는 군주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른 나라들과 같은" 권력있는 군주만을 원했다는 것이다. 신명기 17장에는 (말을 많이 갖는 것으로 상징되는) 대규모 상비군 금지, (혼인관계를 통한) 과도한 외국과의 연맹 금지, (금을 축적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과 부역 금지 조항이 경고사항으로 제시된다(하조니 2016, 194-195). 하지만 솔로몬은 세 가지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은 채 결국 국가 공동체 분열의 씨앗을 뿌렸다. 하지만 성서 내러티브에는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경건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군주도 존재한다. 성서는 군주 그 자체를 단죄하기보다 신명기에서 제시된 덕목을 갖추지 못한 채 신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신적으로 위임된 질서를 따르지 않고 변경하려고 한 점에 주목한다. 현존하는 질서의 지도자가 심각하게 배도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정치체제를 변경하는 시도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Nelson 2010, 28-29)

이러한 이유로 군주정 그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은 16세기 주류 유럽 그리스도교 지식 담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령 홉스의 경우 사무엘상에서 왕을 요청한 것이 신을 버린 것으로 해석한다. 홉스에게 신국은 정치적 주권을 가진 실제 통치인데, 현존하는 정치지도자 사무엘을 버린 행위는 신을 함께 버린 반역 행위라는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홉스의 강조점은 통치의 단일성에 있다. 사무엘이 판관이자, 제사장, 예언자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을 요청 한 것은 현존하는 질서에 대한 거역이자 신을 버린 행위이다. 그렇다고 해서 흠스의 시각에서 사 무엘상의 본문이 당대까지 결정적인 문제로 본 것은 아니다. 흠스의 논의 속에서 사 무엘상에 나타 난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따라야 할 모범이라기보다 지나간 과거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무 엘상 본문을 신에 대한 배도로 간주하더라도 현재 정치상황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 측했던 흠스는 이내 자신의 판단이 경솔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군주정, 공화정 옹호자들 양 진영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가령 필머나 클라렌던과 같은 것은 왕정 자체가 신이 제정한 것이기에 왕을 요청한 것이 신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Nelson 2010, 24-25). 다른 한편에서는 공화정을 유일무이한 정당성 있는 정 체로 여기는 공화정 지지자 들의 적극적인 전유가 있었다. 군주정이 신에 대한 반역, 곧 우상숭배라는 주장은 타협을 거부하 고 질주하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정치운동의 좋은 선전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흠스가 처음 논의를 전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했던 주제가 이제는 심각하게 문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군주제 비판을 둘러싼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 관여하고 있었다. 유대 랍비들은 신명기 17장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선출되는 왕에 대한 기사를 분석하면서 두 가지 다른 관점을 두고 토론하고 있었다. 하나는 장차 일어날 일을 기술하고 있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군주정을 세우라는 규범,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중세 및 르네상스 시기 랍비들의 주류 해석은 신명기 17장을 당위적 규범으로 해석한다. 약속의 땅에 가서 해야 할 일은 왕을 세우는 것 이외에도 아말렉 후손에 대한 정복과 성전 건축이 있는데, 그것은 정당한 왕권이 성립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사무 엘상 8장에서 왕에 대한 요청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요청 그 자체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이교도 들의 국가를 모방하고자 했던 시도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칼뱅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세바 스턴 윈스턴나 밀턴의 논적 살마니우스와 같은 이들은 이러한 주류 랍비 해석을 그대로 반복한다. 혹은 사무엘상 본문에서 문제가 된 지점은 매너가 온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Nelson 2010,

- 12 -

31-34). 하지만 상황은 의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전된다. 비록 당대 주류 랍비들의 해석은 신이 군주제

를 명령했지만, 군주 모델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혹은 군주를 요청하는 방식의 문제로 간주했지만 다른 입장을 가진 랍비 해석도 존재했다. "자신 위에 왕을 세운다는" 신명기 17 장 본문은 군주정이 근본적으로 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신의 원래 계 획은 자신 위에 있는 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지만, 다시 자신 위에 왕을 세운다는 것은 신의 의도와 상치된다. 신이 아닌 인간 혈육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신이 아닌 인간을 신뢰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들 을 열거하면서 군주정 그 자체를 단죄하는 소수 흐름도 존재하고 있었다(Nelson 2010, 35-37).

이들의 해석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주류 해석가들이 반박의 대상으로 분석하면서였다. 밀턴은 요세푸스의 해석을 급진화하면서 군주정 그 자체를 우상숭배로 단죄하는 해석을 수



용하게 된다. 이후 살마니우스와 논쟁하는 와중에 그는 살마니우스가 신이 군주를 세우도록 적극적으로 명령했다는 논변만을 펼친 채 반대 흐름에 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한다(Nelson 2010, 37-39). 또한 밀턴은 실낙원 저작에서 랍비 해석의 도움을 받아 군주정을 악마적인 것의 후계라고 비판한다. 그는 홍수 이후에 평등과 우애 상태에서 모두가 죄 없는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군주의 등장으로 놓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자기 형제에게 부당한 주권을 참칭하는 자이다. 하늘을 멸시하는 자, 하늘로부터 제2의 주권을 요청한 존재인 니므롯을 비판하면서 밀턴은 랍비들의 해석을 참조한다. 니므롯은 반역하다는 마라드에서 유래한 것인데,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따르면 니므롯으로 불린 이유는 그가 온 세상을 선동하여 신의 주권에 반역했기 때문이다. 밀턴은 첫 번째 군주를 우상숭배의 탄생으로 간주하면서 군주제 반대신학을 자신의 공화주의적 기획과 연계시킨다(Nelson 2010, 46-50). 이전에 상대적으로 "침묵"했던 유대 자료들이 헤브라이 공화국 담론을 통해서 유럽 세계에 소개되는 와중에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다시 반군주적 공화주의 맥락으로 기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근대 반군주제 공화주의 담론 변화에 영향을 끼친 정치적 헤브라이즘의 한 갈래를 추적했다. 근대 공화주의의 고전고대적 기원은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만, 헤브라이적 기원에 대한 탐색은 더딘 상황이다. 헤브라이 서사는 서양정치사상사의 주요 이음매 가운데 하나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해 왔음에도 말이다. 스키너가 근대 공화주의의 로마적 기원을 추적하는 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지적 유산 가운데 종종 소홀히 취급했던 귀중한 것들을 들추어 내어 다시 한 번 그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다(스키너 2007, 166). 초기 근대의 다소 잊혀진 역사에 대한 탐구가 오늘날 글로벌 정치의 문제에 직접적인 해답을 제공 해 줄 수는 없지만 근대 세계를 형성한 헤브라이적 자원들은 현재를 어떻게 조망할 수 있는지 하 나의 시각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담론과 정치변혁의 주제는 현재도 유효한 주제이기도 하다. 왈짜가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운동에 있어서 변혁적 국면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이거나 거의 종교적 약속이 요구된다. 정치세계에서 종교 담론을 근원적으로 피할 수 없다면 오늘날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있다.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귀환 담론이 활발하게 제기되는 이 시점에서 종교는 문제의 진원지 혹은 문제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례로 한편에서는 한국사회에서도 성직자정치(priestcraft) 문제

- 13 -

는 더 이상 종교 내부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초기근대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스트들이 씨름했던 한 가지 주제-에라스투스주의 논쟁-을 상기시킨다. 또한 신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타자를 억압하고, 권력의 앞마당에서 활극을 펼치는 근본주의 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도리어 동등한 자들의 공적 우정과 연대를 그 특징으로 하는 공화주의적 가치에 위협을 가한다. 또한 종교의 사유화와 영성의 상품화 시대에 공동선과 결부된 논의에 종교 담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 역시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종교연술에는 타협에 대한 거부 뿐 아니라 보편을 지향하는 실

천이 함께 존 재한다. 회심과 구원 서사는 옛 세계의 내러티브에 속한 이가 더 넓고 큰 세계와 접속하면서, 개방 성을 가지고 자유를 향한 새로운 내러티브에 참여하는 삶이다.

근대국가 형성기에 유럽 세계에 영향을 끼친 정치적 헤브라이즘이 약속의 땅에 입성한 헤브라이 공화국 담론이었다면, 오늘날 글로벌 정치세계에서 전유할 수 있는 헤브라이 서사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버틀러가 지시한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음미할 때 헤브라이 서사 중 유배 혹은 순례 담론은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헤브라이 서사 안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배 담론은 기다림의 여정을 지속하게 하고 질문 속으로 자신의 존재 를 세운다. 경계 안에 머무를 수도, 그렇다고 경계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이 경계에 서서 기존의 법질서로는 해소되지 않는 여러 물음을 자신에게, 타자에게 던지면서 경계를 재설정하는 작업이 다. 이는 우리사회 난민문제나 사회 내 소수자 문제를 대하는 삶의 양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헤브 라이 유배 서사는 이미 고착화된 편견을 절대시하는 대신 여전히 도래하지 않은 신국을 향한 기다 림의 여정으로 자신을 내어준다. 헤브라이 서사 유배 담론은 오늘날 여전히 유효한 정치적 물음이 다. <끝>

- 14 -

#### 참고문헌

김경희. 2018. 『근대 국가 개념의 탄생 : 레스 푸블리카에서 스타토로』. 서울: 까치글방. 윤비. 2012. "모든시민의자유와평등을위하여...:중세후기정치언설의맥락에서본레오나

르도 브루니(Leonardo Bruni)의 이상 정치체제론." 『서양중세사연구』 30: 199-223 Abolafia, Jacob. Spinoza, "Josephism And The Critique Of The Hebrew Republic."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35(2):295-316. Amin, Husnul. 2012. "Neoliberal Globalisation and Islamic Social Movements: Critical

Reflections on Approaches and Models." Islamic Studies. 51(4): 403-421. Aristotle, 천병희 역. 2009. 『정치학』. 고양: 숲. Arnold, Matthew, 윤지관 역. 2016. 『교양과 무질서』. 파주: 한길사. Bailyn, Bernard, 배영수 역. 1999. 『미국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서울: 새물결. Barclay, John M. G. 2006. Flavius Josephus: Against Apion. Leiden: Brill

Baron, Hans. 1966. The crisis of the early Italian Renaissance: civic humanism and republican liberty in an age of classicism and tyrann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Bartolucci, Guido. 2007. "The influence of Carlo Sigonio's "De republica Hebraeorum" on Hugo Grotius' De Republica Emendanda." Hebraic Political Studies 2: 193-210.

Bartolucci, Guido. 2017. "The Hebrew Republic in Sixteenth-Century Political Debate: The Struggle for Jurisdiction." In Ancient Models in the Early Modern Republican Imagination. edited by Wyger Velema, Arthur Weststeijn. Brill.

Beiner, Ronald. 2014. "James Harrington on the Hebrew Commonwealth." *The Review of Politics*. 76: 169-193.

Berger, Peter. 1967.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New York: Random House.

Berger, Peter. 1999,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A Global Overview", In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Blythe, James M. 1992. *Ideal Government and the Mixed Constitution in the Middle Age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Bodian, Miriam. 2008. "Biblical 'Jewish Republic' and the Dutch 'New Israel' in Seventeenth-Century Dutch thought." In *Political Hebraism: Judaic Sources in Early Modern Political Thought*. edited by Gordon Schochet, Fania Oz-Salzberger, and Meirav Jones. New York: Shalem Press.

Burnett, Stephen G. 2012. *Christian Hebraism in the Reformation Era (1500-1660): Authors, Books, and the Transmission of Jewish Learning*. Leiden and Boston: Brill.

Burnett, Stephen G. 2016. "Martin Luther and Christian Hebraism."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lhoun, Craig J, Mark Juergensmeyer, and Jonathan VanAntwerpen. 2011. *Rethinking*

- 15 -

*Secularism*. Oxford, N.Y. : Oxford University Press. Cherry, Conrad ed. 1998. *God's New Israel: Religious Interpretations of American*

*Destiny*.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icero, Marcus Tullius, 김창성 역. 2007. 『국가론』. 파주: 한길사 Coffey, John. "Quentin Skinner and the Religious Dimension of Early Modern Political

Thought", In *Seeing Things Their Way: Intellectual History and the Return of Religion*. edited by Alister Chapman, John Coffey and Brad S. Gregory Notre Dame, Ind.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46-74

DeLapp, Nevada Levi. 2014. *The Reformed David(s) and the Question of Resistance to Tyranny: Reading the Bible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New York: Bloomsbury T & T Clark.

Dunkelgrün, T. 2009. "'Neerlands Israel' Political Theology, Christian Hebraism, Biblical

Antiquarianism, and Historical Myth' In Cruz, Laura, Willem Frijhoff. ed. Myth in History, History in Myth. Boston: Brill

Essary, K. 2017. "Jewish Antiquity in the Sixteenth Century: Calvin's Reception of Josephus." Church History 86(03): 668-694.

Feldman, Louis H. 1999. Josephus's Interpretation of the Bibl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ox, Jonathan. 2001. 'Religion as an overlooked ele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3(3): 53-73

Groenhuis, G. 1981. "Calvinism and National Consciouness: the Dutch Republic as the New Israel." In Bornewasser, J. A., A. C. Duke, C. A. Tamse eds. Britain and The Netherlands: Volume VII Church and State Since the Reformation. Netherlands: Springer. 118-133

Grosby, Steven. 2011. "The third culture" In Jonathan Jacobs ed. Judaic Sources and Western Thought: Jerusalem's Enduring Pres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73-96

Haivry, Ofir. 2017. John Selden and the Western Political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nkins, James. 2010. "Exclusivist Republicanism and the Non-Monarchical Republic." Political Theory 38(4): 452-482.

Hazon, Yoram, 김구원 역. 2016. 『구약성서로 철학하기.』 서울: 홍성사. Hurd, Elizabeth S. "The Political Authority of Secular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0(2): 235-262. Jones, Meirav and Yossi Shain. 2017. "Modern sovereignty and the non-Christian, or

Westphalia's Jewish Stat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3(5): 918-938. Jones, Meirav. 2016. "The Turn to Tradition in the Study of Jewish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9: 67-87 Josephus. 1965. Jewish Antiquities, Volume I-IX (Loeb Classical Library) Josephus. 김지찬 역. 1987. 『요세푸스I』. 서울 : 생명의말씀사. Josephus. 김지찬 역. 2005. 『요세푸스IV』. 서울 : 생명의말씀사.

- 16 -

Josephus. 김지찬 역. 2013. 『요세푸스II』. 서울 : 생명의말씀사. Kaplan, Yosef, Henry M-choulam and Richard H. Popkin. 1989. Menasseh ben Israel

and his World. Leiden: Brill . Katchen, Aaron L. 1985. Christian Hebraists and Dutch Rabbis: Seventeenth Century

Apologetics and the Study of Maimonides' Mishneh Tora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Klepper, Deeana Copeland. 2007. The Insight of Unbelievers: Nicholas of Lyra and

Christian Reading of Jewish Text in the Later Middle Ag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planche, François. 2008. "Christian Erudition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and the Hebrew State." Hebraic Political Studies. 3(1): 5-18. Lilla, Mark. 2007. The stillborn god : religion, politics, and the modern west. New York

: Vintage Books. Machiavelli, Nicolo. 박상섭 역. 2011. 『마키아벨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Martin, David. 1978. A General Theory of Secularization. New York: Harper & Row. Meeks, W, 1967. The Prophet-King: Moses Traditions and the Johannine Christology.

Leiden: Brill. Melamed, Abraham, Lenn E. Goodman. 2003. The Philosopher-King in Medieval and

Renaissance Jewish Thought. A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Mintz-Manor, Limor. 2017. "The Phoenix, the Exodus and the Temple: Constructing Self-Identity in the Sephardi Congregation of Amsterdam in the Early Modern Period." In Kaplan, Yosef and Dan Michman eds. The Religious Cultures of

Dutch Jewry. Boston: Brill, 2017 Nelson, Eric. 2010. The Hebrew Republic: Jewish Sources and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Nelson, Eric. 2014. The Royalist Revolution: Monarchy and the American Founding.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Newman, Stephen. 1978. "A Note On Common Sense and Christian Eschatology".

Political Theory 6(1):101-108. Norris, Pippa and Ronald Inglehart. 2011. Sacred and Secular: Religion and Politics

Worldwide. 2nd Edit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ine, Thomas. 박홍규 역. 2004. 『상식』, 인권. 서울: 필맥. Pallares-Burke, Maria Lucia G. 곽차섭 역. 2007. 『탐史: 현대역사학의 거장 9인의 고백과

대화』. 서울: 푸른역사. Philo 1935, On Abraham. On Joseph. On Moses (Loeb Classical Library 289). Harvad

University Press. Philpott, Daniel. 2009. "Has the Study of Global Politics Found Relig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2(1): 183-202 Philpott, Daniel. 2011. "The Challenge of September 11 to Secular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World Politics. 55(1): 66-95 Popkin, Richard 1992. "The Marranos of Amsterdam" In The Third Force in

- 17 -

Seventeenth-Century Thought. Leiden: Brill. 149-171 Raz-Krakotzkin, Amnon. 2006. "Censorship, Editing, and the Reshaping of Jewish

Identity: The Catholic Church and Hebrew Literature in the Sixteenth Century." In Coudert, Allison, Coudert and Jeffrey S. Shoulson. Hebraica Veritas? Christian Hebraists and the Study of Judaism in Early Modern Europe.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Rogers, Z. 2009. "Monarchy vs. Priesthood: Josephus, Justus of Tiberius, and Agrippa II," In Z. Rogers, M. Daly-Denton, and A.F. McKinley. A Wandering Galilean: Essays in Honor of Sean Freyne. Leiden: Brill. 173-184.

Rosenblatt, Jason P. 2006. Renaissance England's Chief Rabbi: John Selde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Schochet, Gordon, Fania Oz-Salzberger, and Meirav Jones. ed. Political Hebraism: Judaic Sources in Early Modern Political Thought. New York: Shalem Press.

Siegel, Jerrold E. 1966. "Civic Humanism' or Ciceronian Rhetoric?" Past and Present 34: 3-48.

Sierhuis, Freya. 2015. The literature of the Arminian Controversy : religion, politics and the stage in the Dutch Republ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igner, Michael A. 2004. "Polemic and Exegesis: The Varieties of Twelfth-Century

Hebraism." In Coudert, Allison P. and Jeffrey S. Shoulson eds. Hebraica Veritas? Christian Hebraists and the Study of Judaism in Early Modern Europe.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Strauss, Leo. 1958. Thought on Machiavell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anhoozer, Kevin J. 2005.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 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Doctrin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Viroli, Maurizio. 2012. *As If God Existed: Religion and Liberty in the History of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Wald, Kenneth D. and Clyde Wilcox (2006). "Getting religion: Has political science rediscovered the faith fact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 Walzer, Michael. 2015. *The Paradox of Liberation: Secular Revolutions and Religious Counterrevolutio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Whitford, D. M. 2016. Erasmus Openeth the Way Before Luther. *Church History and Religious Culture*. 96(4): 516-540.